

메가어스 엑스포 운영 논란...취지 무색

기업당 최대 700만원 공공지원금
'바우처 40% 공제'에 대기업 장사
참여기업 "사비 쓰고 들러리" 반발
전북TP, 내년 바우처물 폐지 검토

(1)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된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가 당초 목적과 달리 현장 운영에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관련 기업과 기관들의 취재를 통해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방향을 시리트로 중점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전북을 비롯한 전국 공공기관이 기업당 최대 700만 원의 국·도비로 부스 참가 패키지를 지원한 베트남 현지 박람회에서, 주관사의 고율 수수료 공제와 대기업 가공식품 판매 등 기형적인 바우처 운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베트남 K-브랜드: 메가어스 엑스포(MEGA-US EXPO)'는 지난 2023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베트남 호치민시 과학기술부 산하 사이공 혁신허브(SIHUB)의 교류를 계기로 시작된 해외 진출 지원 행사다.

올해 5회째를 맞았으며, 도내를 넘어 전국 스타트업의 동남아 판로 개척과 1:1 바이어 매칭 지원을 명분으로 유관



피지컬AI 지역거점 발전 포럼 22일 서울 한국산업은행 본점 IR센터에서 열린 '피지컬AI 지역거점 발전 포럼'에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원택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피지컬 AI 체험 부스에서 로봇 동작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기관들의 참여가 확대됐다.

그러나 현장에 참가한 일부 기업들은, 주관사의 비정상적인 바우처 정산과 파행 운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성토했다.

박람회에 참가한 도내 업체 대표 A씨는 "바우처 물을 운영해 물품을 대신

팔아준다는 사전 공지는 전혀 없었다"며 "스타트업 부스는 파리를 날리는데, 현지 대형마트에서 신라면과 초코파이를 떼어다 채운 주관사 부스에만 참가객이 몰렸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 B씨는 "항공료와 숙박비, 물류비로 500만~600만 원의

사비를 쏟아부었지만 결국 주관사 장사의 들러리만 선 꼴"이라며 "주관사는 모객용 바우처를 정산하며 수수료 30%에 세금계산서 부가세 10%까지 얹어 사실상 매출의 40% 가까이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관사 대표는 "바우처 수

천호성 '5억 베팅' 논란... 교육청 "불법 녹취, 악의적 왜곡"

<속보>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이른바 '5억 원 베팅' 녹취 보도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불법 녹취를 토대로 한 악의적인 왜곡 보도"라며 선거 과정 전반에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 교육감은 지난 2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돼야 한다"며 "선거 과정과 그 이후에도 어떠한 불법적 행위는 결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일축했다.

전주교대 교수 재직 당시 지인과의 사적인 대화 파편이 본래 맥락과 무관하게 악의적으로 편집·유출됐다는 설명이다.



천호성 도교육감

전북교육청 관계자 역시 "불법 녹취를 앞세운 악의적인 보도"라며 "실제 금전 거래 전혀 오가지 않은 사인 간의 통화

내용을 두고 불법 선거자금 프레임에 씌우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흠집 내기"라며 의혹 확산에 선을 그었다.

경찰이 해당 녹취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사실관계 규명과 사태 추이에 도내 교육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수료는 40%가 아닌 부가세 포함 30%이며, 강화된 현지 세법에 따른 세금 납부와 공간 단속 방어를 위한 필수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대기업 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80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발행했으나 정작 바우처 물 참가를 신청한 기업이 20여 곳에 불과했다"며 "바우처 사용처를 확보하기 위해 현지 마트에서 물량을 급히 조달한 고육지책이었고, 3000만 원 상당의 잔여 재고까지 떠안아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주관사에서 도내 참여 기업의 판매를 돕고자 바

우처 물"을 처음 시도했으나 신청 기업이 30곳 미만에 그쳐 공간을 매우려 대기업 제품을 사다 팔았다"며 "취지에 맞지 않아 내년부터 바우처 물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도내 공공예산이 주관사의 장사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피지컬AI 기업 유치·금융지원 본격화

피지컬AI 지역거점 발전 포럼 참석
200여 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
전북·경북·경남·금융기관 MOU
투자·실증 연계 산업생태계 조성

전북도가 '피지컬AI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사업' 착수에 이어 기업 투자유치와 금융지원 기반 강화에 나서는 등 피지컬AI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본격 나섰다.

도는 22일 한국산업은행 본점 IR센터에서 열린 '피지컬AI 지역거점 발전 포럼'에 참석해 로봇기업과 스타트업 등 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북의 육성 의지와 발전 방향을 설명한 뒤 산업 기반과 지원 정책을 알리며 기업 유치 활동을 펼쳤다.

한국산업은행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조업의 AI 전환과 피지컬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거점의 역할을 공유하는 한편 정책금융과 지역금융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생산 기반을 피지컬AI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거점이 주도하는 피지컬AI 글로벌 1강 도약을 뒷

받침하겠다는 취지.

행사에는 이원택 도지사를 비롯해 배경훈 과기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경북·경남 도지사, 두산로보틱스 등 주요 로봇기업과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전북·경북·경남 3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전북은행·iM뱅크·BNK경남은행 등 지역금융기관은 '피지컬AI 지역거점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지역 내 유망 기업과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고, 기업 유치와 산업 인프라 조성, 정책금융 연계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국가사업인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사업과 새만금 인프라,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하나로 잇는 '피지컬AI 지역거점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기업과 도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피지컬AI·로봇 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완주군에 로봇랜드 생산공장과 AX센터

투자를 계획 중인 원익로보틱스도 행사에 참여해 전북의 기업 유치에 힘을 보탰다. 도는 지난 16일 생태계 조성사업 착수 이후 도내 투자를 검토하는 관련 기업들과 투자 규모, 임지, 지원 방안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조혁신피지컬AI 협회는 회원사가 400여 곳으로 늘어나는 등 피지컬AI 산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기업 네트워크를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같은 날 피지컬AI 실증단지가 들어설 완주군에서는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사업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도는 연구개발 성과를 제조 현장에 적용·확산하고 이를 기업 성장과 투자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원택 도지사는 "이번 포럼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피지컬AI 기술개발과 실증, 산업현장 적용을 위해 전북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에 나서는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추석 연휴 문화·관광시설 243곳 문 연다

전시·공연 등 54건 문화행사 운영
파카소 도에 등 다채로운 전시

전북도가 추석 연휴를 맞아 도내 문화·관광·체육시설 243곳을 개방, 전시·공연과 전통문화 체험 등 54건의 문화행사를 운영해 도민과 귀성객, 관광객에게 풍성한 한가위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연휴에는 미술관 12개소, 박물관 27개소, 도서관 36개소, 스마트도서관 12개소, 작은영화관 9개소, 기타 문화시설 12개소, 공공체육시설 102개소, 주요 관광지 33개소가 문을 연다.

■ 파카소부터 지역 예술까지...추석 연휴 풍성한 전시·공연

먼저 전북도립미술관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 주최하는 ▲특별전 파카소 도에: 발로리스의 여름이 관람객을 맞는다. 국립현대미술관 이진희컬렉션으로 기증된 파카소의 도에 작품과 관련 아카이브를 통해 세계적인 거장의 예술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의 시선으로 감정과 관계를 풀어낸 ▲체험형 전시 '이나고: 이상한데 나를 닮은 괴물' 등 총 6건의 전시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시군에서도 27건의 전시와 공연이 펼쳐진다. ▲전주대사습청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 마당창극 암행어사 출도야가 무대에 오르고, ▲군산 은파물빛광장에서는 사물놀이와 판국 등이 어우러진 국악상

설공연 달빛문화제가 열린다.

▲익산 백제왕궁박물관에서는 백제시대 연꽃의 상징과 미의식을 살펴보는 진흙 속의 군자-백제 왕궁에 피어난 연꽃을 선보이고, ▲정읍시립미술관에서는 특별기획전 공간의 기억: 머무는 시선을 통해 도시와 공간을 바라본 다양한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다.

■ 전통놀이부터 송편만들기까지...은 가족이 즐기는 한가위

추석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명절 특별행사 21건도 도내 곳곳에서 진행된다. 전통놀이부터 공예·음식 만들기까지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면에서 계속>

전북도, 추석 연휴 해상교통 특별대책 추진

5개 항로 7,275명 이용 전망

24일 2,000명 몰릴 것으로 예상

23~27일 5일간 안전관리 강화

여객선 증편·편의서비스 확대

전북도는 추석 연휴 기간 연안여객선과 도선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해상교통 이용을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간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군산·부안 지역 연안여객선과 군산 비안도 도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관리와 수송능력 확대, 이용자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도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운조합 등 관계기관과 특별교통대책반을 구성해 접안시설과 여객터미널의 안전·정결 상태를 점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출항 전후 화물 과적 여부와 고박 상태를 확인하고 항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선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선내 비상훈련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도내 5개 항로에서 3개 선사가 여객선을 운항하며, 하루 평균 1,455명씩 총 7,275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4일에는 약 2,000명이 몰려 연휴 기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용객 집중에 대비해 여객선 증편 운항으로 수송능력을 확대하고, 임시주차장 확보와 여객선 길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실시간 운항정보 제공 시스템(PATIS)과 '내일의 운항예보'를 운영하자는 한편 SNS를 통한 터미널 혼잡도 안내와 개편된 예매 시스템을 활용해 이용객의 대기시간과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한편 도는 섬 주민의 교통 부담 완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객선·도선 운임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전국 일반 이용객에게는 여객운임의 50%를 지원하며, 도내 섬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섬을 오가는 여객선·

도선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올해 말도~명도~방축도 해상 인도교 개통으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경정예산을 확보해 전국 이용객이 연중 반값 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임 지원을 통해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관광객 유입과 도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철태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추석 연휴 동안 연안여객선과 도선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1면에서 이어서>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는 전주 공예품전시관의 전통놀이·공예체험을 비롯해 우리놀이 스탬프투어, 전주기점놀이 체험, 전주부채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의 특별전시·전통놀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옷놀이·제기차기·투호·비석치기 등 전통 놀이 체험과 스탬프투어를 진행한다. 익산에서는 보석박물관의 자개키캡 키팅 만들기와 전통놀이 체험, 만경강문화관의 바람뿌 만들기

와 옷놀이 미니대회, 백제왕궁박물관의 전통놀이 마당 등이 이어진다. 정읍시립박물관에서는 연날리기와 투호 등 전통놀이와 선사문화 체험, 한복 포토존을 운영하고,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에서는 송편 만들기

와 전통문화 체험을 결합한 '한가위 한마당'을 마련한다. 고창에서는 전통놀이와 송편 빚기 체험, 부안에서는 추석맞이 가요

콩쿠르대회와 부안농악 판국 등이 펼쳐져 명절 분위기를 더한다.

전통놀이·공예 등 체험 풍성
주요 관광지·체육시설도 운영

■ 추석 연휴 문화시설 등 243곳 개방

연휴 기간에는 도민과 귀성객이 가까운 곳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과 주요 관광지 243개소가 개방된다.

전북도립미술관과 국립전주박물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등 박물관·미술관을 비롯해 도서관과 작은영화관이 운영되며, 전주 경기전·전라감영·전주동물원 등 주요 관광지도 방문객을 맞는다. 또한 전주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을 비롯한 도내 공공체육시설도 시설별 일정에 따라 운영돼 가족 단위 여가와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추석 당일인 9월 25일 휴관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시설이 있는 만큼, 방문 전 해당 시설의 개방일과 운영시간, 이용료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전북분과 출범 “산업지도 바꾼다”

전북 3대 성장엔진 산업화 본격화

현대차 새만금 투자 16개 과제 설정

의원단·전문가단·자문단 구성

10월 종합점검, 11월 예산·입법 대응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전북분과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분과는 안호영 책임위원과 김의겸·박희승·박지원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중앙당과 전북 정치권, 전북특별자치도, 관계기관, 산업계의 역량을 결집해 전북의 성장전략을 기업투자자와 지역 산업의 성장,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메가성장특위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국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G3T 권역별 성장엔진을 연계해 지방주도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당의 실행기구다.

전북분과는 전북의 3대 성장엔진인 그린수소 플랫폼, 첨단로봇 파운드리, 농생명 바이오를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계획과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으로 연결해 전북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북분과는 의원단과 전문가단, 자문단을 구성해 단계별 실행체계를 가동한다.

의원단은 전북 성장전략을 총괄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예산 확보와 입법·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단은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지·전력·용수·인허가 등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의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의회와 시민사회, 행정 및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은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북분과는 공식 출범에 앞서 지난 11일 소속 의원 간담회를 열어 전북의 주요 산업 현안과 분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현대자동차 등으로부터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쟁점도 보고받았다.

이어 17일에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정부 지원과 제를 점검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추가로 제시한 16개 요구사항을



<사진=의원실>

전북분과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전북분과는 10월 중 관계기관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16개 요구사항별 담당기관과 처리 방향을 확정하고, 필요한 예산·입법·제도개선 과제와 이행 시한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11월에는 정부 예산안과 법안 심사 일정에 맞춰 피지컬AI를 비롯한 전북 3대 성장엔진의 예산 및 입법과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한다. 중앙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와 관계부처 책임자 간담회도 추진해 핵심 과제의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안호영 전북분과 책임위원은 “전북분과는 사업을 나열하거나 회의를 반복하는 조직이 되지 않겠다”며 “무엇이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지, 어느 기관이 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 이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 성장엔진을 예산과 입법, 제도개선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해 기업투자와 지역기업의 성장, 지역인재 채용으로 연결하겠다”며 “전북의 산업지도를 바꾸고 도민이 체감하는 좋은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책임 있게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안호영,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개선 제안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제제와 방향제,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물질 자체의 유해성뿐 아니라 실제 사용량과 노출 경로까지 고려해 평가하고, 살생물제품 승인 과정에서 기업이 심사 절차와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제안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안호영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NAHLS),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CK)가 공동주관했다. 정부·학계·산업계·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과학적 위해성 평가와 살생물제품 승인제도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기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좋은 규제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운영되는 규제”라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위해서 기반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같은 물질이라도 사용량과 사용 빈도, 흡입·피부접촉 등 노출경로, 환경 여부에 따라 실제 위해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성분 평가를 넘어 여러 물질에 동시에 노출되는 복합노출과 반복 사용에 따른 누적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

살생물제품 승인제도에 대해서는 축적된 심사 경험과 유사 제품의 평가 결과를 활용해 불필요한 중복 검토를 줄이고, 승인

신청 전부터 자료요건과 보완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동일한 자료에 대한 보완 사항도 가급적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시해 기업이 승인 절차와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경문 한국피앤지 이사는 “제품의 실제 사용방법과 노출 수준에 기반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일관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자료 보완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승인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허혜인 기후에너지환경정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과 효과·효능의 검증 수준을 유지하면서 절차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살생물제 산관협의를 공식 발족해 세부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이무열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축적된 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검토되는 물질이나 제품 가운데 일반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생산·사용 조건을 전제로 심사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도, 추석 연휴 반려동물 진료·구조 공백 막는다

24~27일 동물 비상대응체계 가동

전북도는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간 반려동물 진료와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연휴 기간 반려동물의 갑작스러

운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해 진료료가 가능한 도내 동물병원 14개소의 진료 일정과 운영시간을 안내한다. 병원별 진료일과 운영시간이 다른 만큼 방문 전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유실·유기동물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14개 시군의 비상연락체계를 가동, 시

군별 구조·포획반과 동물보호센터를 연계해 대응할 계획이다.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시군 당직실로 신고하면 동물보호업무 담당자와 구조·포획반에 신고 내용이 전달된다. 구조된 동물은 동물보호센터로 이송해 보호하고, 동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 소유자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반환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진료 가능한 동물병원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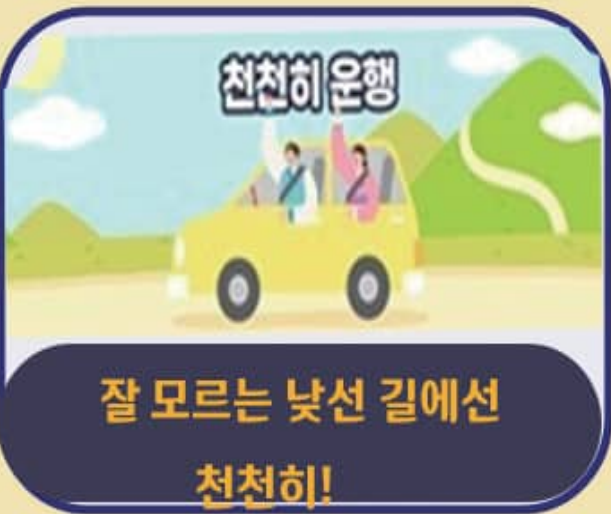
현황과 시군 당직실 연락처, 유실·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련 정보는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에 대해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유실·유기동물과 반려동물 응급진료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추석명절 귀성길 운전 시 이것만은 꼭 지켜요!



잘 모르는 낯선 길에선
천천히!



음주운전 절대 금지!



졸음쉼터,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경관보전직불 예산 대폭 삭감… 전북 타격 우려

신청면적 전국 절반 넘어… 신청액보다 21억6천만원 부족

정부가 내년도 경관보전직불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전국 최대 사업 지역인 전북 농가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북의 사업 신청면적이 전국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정부 배정 규모가 실제 신청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예산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

과, 내년도 경관보전직불사업 정부안은 120억100만원으로 올해 168억3천만원보다 48억2,900만원(28.7%) 감소했다.

예산 산정에 반영된 사업면적도 올해 2만4,000ha에서 내년 1만6,770ha로 7,230ha(30.1%) 줄었다. 경관작물은 1만5,000ha에서 1만970ha, 준경관작물은 6,000ha에서 4,200ha, 준경관조치는 3,000ha에서 1,600ha로 각각 축소됐다.

전북은 이번 예산 축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전북지역 신청면적은 약 1만1,340ha로 전국 신청면적 2만2,022ha의 51.5%를 차지한다. 신청액도 약 86억6,900만원으로 전국 신청액 158억9,800만원의 54.5%에 달한다.

반면 정부안에 반영된 전북 배정 규모는 약 8,562ha, 65억1,200만원 수준이다. 신청수요와 비교하면 면적은 약 2,778ha, 금액은 약 21억5,700만원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신청액 대비 부족분 약 39억원의 절반 이상이 전북에 집중되는 셈이다.

경관보전직불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농촌 경관을 개선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다. 특히 쌀에 편중된 재배구조를 완화하는 기능도 갖고 있어 정부의 쌀 수급안정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농식품부는 사업관리 내실화를 위해 사업면적을 축소한다는 입장이지만, 농

가에서는 기상여건 등에 따라 이행점검 과정에서 지급면적이 줄어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액 역시 적격심사와 실제 이행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신 의원은 “농민이 종자값과 작업비를 먼저 들어 경관작물을 심는 사업에서 집행잔액만을 이유로 다음 해 참여면적부터 줄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 정책이 협조한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효 신청수요를 충족할 수준으로 예산을 복원하고 기상 피해 등 농민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사진=북전주농협>

북전주농협 ‘딸기 정식’ 농가 현장 방문

고품질 딸기 생산 지원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본격적인 딸기 정식 시기를 맞아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관내 딸기 재배 농가를 순회 방문하며 영농현장을 살피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딸기 정식 작업

를 차례로 방문해 농업인들과 올해 재배 여건과 작황 전망, 생산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안정적인 영농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이우광 조합장은 “정식철을 맞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농영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전주농협은 약 2주간 딸기농가

/최준호 기자

농진청, 농업 연구개발 영역 ‘우주’로 넓힌다

농림위성·우주식품 미래 가능성 모색

전주혁신도시에 자리한 농촌진흥청이 농업 연구개발(R&D)의 시선을 지상으로 우주로 넓힌다.

농림위성을 활용한 농경지 관측은 물론 우주산업과 우주식품 등 첨단기술을 농업 연구에 접목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 식량과기후와 함께 오는 30일 농업과학도서관 오디오리움에서 ‘제1회 RDA 인사이트 데이’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RDA 인사이트 데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과학 분야의 연구·정책·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이를 새로운 농업 R&D 아이디어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된 개방형 지식교류 프로그램이다.

농진청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 산업계 전문가뿐 아니라 대학생과 일반 국민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

첫 행사의 주제는 ‘농업위성, 우주에서 찾은 새로운 기회’다.

지난 7월 7일 차세대중형위성 4호인 농림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우리나라 농경지와 산림 환경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국가 위성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농진청은 위성 관측을 통한 농업·산

림 정보 활용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우주산업과 우주식품 등 다른 분야의 기술을 농업 연구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첫 강연에서는 위성개발 전문기업 세트레이이 김종은 팀장이 ‘우리별에서 우주산업까지, 세트레이이의 도전’을 주제로 국내 위성산업 발전 과정과 최신 기술 동향, 위성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소개한다.

이어 한국식품연구원 김범근 박사가 ‘우주식품과 미래 식량기술’을 주제로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식품 기술과 관련 기술이 미래 식량·식품 연구에 미칠 영향을 설명한다.

참석자들이 농림위성과 일반위성, 우

주식품의 차이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도 진행된다.

농진청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RDA 인사이트 데이를 정례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서 논의된 기술 동향과 아이디어를 미래 연구수요 발굴과 농업 R&D 전략 수립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우주, 인공지능,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농업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다른 기술과 아이디어가 만나 농업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농협·임실치즈농협, 35사단 군 가족에 유제품 전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운동 실천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과 (사)나눔축산운동본부는 임실치즈농협(조합장 이창식)과 함께 지난 21일 임실군 임실읍 소재 35사단 충경마을을 방문해 ‘나눔축산운동 군 가족 유제품 지원’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35사단 군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추석 명절을 맞아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완우 전북농협 경제본부부장, 이창식 임실치즈농협 조합장, 이재문 농협임실군지부장, 차수가 충경마을 이장 및 임실치즈농협 임직원 등이 참석해 군 가족들에게 440만원 상당의 유제품을 전달하며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임실치즈농협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운동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성훈 본부장은 “우리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나눔축산운동을 통해 축산업이 지역사회 곳곳에 온정을 전하고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창식 조합장은 “추석을 앞두고 군 가족들에게 작심 정성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임실치즈농협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협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눔축산운동은 축산업의 사회공헌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선진



전북농협과 (사)나눔축산운동본부는 임실치즈농협과 함께 지난 21일 35사단 충경마을을 방문해 ‘나눔축산운동 군 가족 유제품 지원’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전북농협>

축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소비자, 농업인, 지역사회 소의계층을 대상으로 펼치는 범 축산업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실천운동으로 1% 기부·나눔활동, 소의

계층 봉사·후원활동, 경증농가 상생협력활동, 지역사회 환경개선활동, 소비자 상호이해 증진활동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농어촌공익산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김태웅)는 추석 명절을 맞아 22일 익산 합열시장을 방문해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현장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 명절 대박장을 맞아 활기를 띤 합열시장을 찾은 고령 농업인들에게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현장에서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지사 직원들은 풍성한 명절 분위기 속에서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며 사업의 혜택과 가입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해 시장을 찾은 농업인들로부터 큰 반응을 얻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영농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 농업인(만65세~84세이하)이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매도 또는 매도조건부 임대)할 경우, 최장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령 농업인에게

는 농기반이 필요한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지를 공급해 농업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불금 지급 단가는 농지를 전량 매도하는 경우 1ha당 매월 50만원(연600만원)이 지급된다. 매도조건부 임대 방식으로 이양할 경우에는 은퇴 직불형 농지연금 및 농지 임대료와 더불어 1ha당 매월 4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입 원금이 기존‘최고 10년간 중단없이 영농을 계속한 자’에서‘생애 영농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인 자’로 대폭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태웅 익산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평생 농업에 헌신하신 고령 농업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돕고,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끄는 청년농을 육성하는 핵심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홍보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정읍 귀농, 1박 2일 미리 체험하세요”

정읍시가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다른 지역 도시민 2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현장 체험교육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6년 하반기 귀농체험(현장실습) 학교’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총 1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정읍에 머물며 농촌 환경과 귀농·귀촌 여건을 살펴보고 실제 농업 현장을 둘러본다.

여러 체험 활동에도 참여해 농촌생활과 영농 과정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시는 참가자들이 농촌생활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정착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읍의 귀농·귀촌 지원책과 필요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다른 지역 도시민이며 모집 인원은 20명이다.



<사진=정읍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귀농·귀촌 통합 누리집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귀농체험학교는 정읍 정착을 고민하는 도시민들이 농촌과 농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실용적인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읍에서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사진=세만금개발공사>

세만금개발공사, 취약계층에 기부금 전달

창립 8주년 맞아 나눔 실천

세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 나경균)는 22일 창립 8주년을 맞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부는 공사의 창립 8주년을 기념하고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군산종합사회복지관(지역 취약계층 복지 지원) △소리엘 사회적협동조합(청소년 발달장애 지원) △둥근마음보금자리(장애인 지원) 등 5개

시설에 각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 상당의 은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공사는 이번 기부를 통해 각 시설의 지원 대상자들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나경균 사장은 “창립 8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사진=농협자산관리회사 전북지사>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북지사, 농심천심 실천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북지사(지사장 이용우)는 지난 21일 ‘추석 명절 맞이 농업인 돕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용지농협(조합장 김웅),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북지사(지사장 이용우)가 함께 했으며, 관내 어려운 농업인을 상대로 명절용품과 생필품을 지원했다.

행사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특히 어려운 농업인을 상대로 희망을 나눠주기 위해 추진됐다.

농협자산관리회사 이용우 전북지사장은 “어려운 농업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지원을 위해 공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대 총동창회 “서울대 10개 후속 일정 밝혀라”

평가 기준 공개 및 미선정 거점국립대 지원 계획 제시 요구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1차 패키지 지원 대상에서 전북대학교가 제외된 가운데, 전북대학교총동창회가 정부를 향해 평가 기준 공개와 조속한 후속 선정 일정 제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3개 대학을 선정했다.

전북대를 비롯한 나머지 6개 국가거점국립대학은 1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전북대 총동창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전북대가 제기한 이의제기를 공정하고 책임 있게 검토해 결과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평가 기준과 절차, 결과를 대학과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북대를 비롯한 미선정 6개 거점국립대의 후속 선정 여부와 일정, 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선정이 늦어져 거점국립대 간 교육·연구 여건과 지역 경쟁력 격차가 장기간 누적되지 않도록 재정적·정책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총동창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북 지역 대학이 후속 선정 대상이라

고 밝혔으나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된 내용은 없다”며 “단순한 정치적 기대나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해 진행 상황을 전북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 전북대 교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 과정 공개와 9개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균형 지원을 촉구한 바 있어, 대학 본부의 이의신청에 이어 교수회와 동문 등 학내외 전반으로 후속 대책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하반기 교육전문직원 30명 선발

일반·전문 22명 임기제 8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 지원과 교육 정책 추진 역량을 갖춘 2026년도 하반기 교육전문직원 30명을 선발한다.

선발 인원은 일반·전문분야 중등 22명, 임기제 8명 등 총 30명이다.

임기제 분야는 초등 교육인권보호 3명,



전호성 교육감

중등 교육인권보호 2명, 학생자치 2명, 영양 1명을 각각 선발한다.

임기제 직원은 임용 후 2년간 근무하며 희망할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일반·전문분야의 경우 2027년 3월 1일 기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정규교원이다.

중등교사는 보직교사 경력 3년 이상과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춰야 하며 교감 분야는 국공립학교 현직 교감이 지원할 수 있다.

임기제 분야는 교육경력 7년 이상인 국공립학교 정규교원이 대상이다.

전형은 서류심사와 소양평가, 현장평가, 역량평가 순으로 치러진다.

서류심사는 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며, 1차 소양평가는 내달 31일

실시한다.

이어 2차 현장평가는 오는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3차 역량평가는 오는 11월 28일 거쳐 오는 12월 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김향운 교원인사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을 거쳐 학교 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신인상 공모

10월 2일까지 작품 접수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정신을 이어 한국 시조문학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갈 신진 시인을 찾는다. 익산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제18회 가람시조문학신인상’ 공모를 진행한다

가람시조문학신인상은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신진 시조시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8회를 맞았으며, 지난해에는 ‘화살나무 아래에 놓은 숯들이 있다’를 쓴 황순희 시인이 수상했다.

응모 자격은 2016년 9월 21일 이후 등단한 경력 10년 미만의 시조시인 가운데 최근 3년간(2023년 9월 21일~2026년 9월 20일) 작품이나 작품집을 발표한 사람이다.

응모 작품은 출판물이나 정기간행물 등 지면에 발표된 시조 가운데 다른 문학상을 수상하지 않은 순수 창작 작품이어야 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시인은 신청서와 작품을 가람문학관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garamaward@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신청서와 작품에 한해 접수한다.

수상자는 시조문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최종 의결로 결정되며, 상금 1,0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7일 가람문학관에서 열린다. 이날 창작 경력 20년 이상의 중진 시조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46회 가람시조문학상’ 시상도 함께 진행된다.

신청 양식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가람문학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리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장은 “가람시조문학신인상이 재능 있는 신진 시조시인들의 창작 활동에 힘을 보태고 더 넓은 문단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시조문학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축제행사안전관리자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오늘(23일) 오후 6시까지 ‘축제행사안전관리자(2급) 자격증 취득반’ 교육생을 모집한다.

‘축제행사안전관리자’는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와 축제행사안전관리원(주)이 공동 발급하는 등국민간자격으로, 축제, 전시, 마이스 등 행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문 자격이다.

일반 산업안전 자격과 달리 행사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의 실무를 폭넓게 다룬다.

모집 대상은 마이스(MICE) 산업과 관광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신청자 가운데 교육생 3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특히, 재단은 교육비와 자격 검정료, 자격증 발급비를 포함한 참가비 25만 원 중 국비 20만 원을 지원해 교육생이 참가비 5만 원만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은 전문기관인 축제행사안전관리원이 맡아 9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 컨퍼런스룸에서 진행한다

이 과정은 축제와 행사의 안전관리 중

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광 인재의 현장 중심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행사 전 과정의 위험 요인에 대응할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내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확산을 목표로 한다.

교육 내용은 △안전관리 과정 △비상사태 관리 △프로그램 관리 △안전보건과 손실 예방 △관련 법과 규정 등이다. 교육 당일 오프라인 강의를 이수한 뒤 검정시험을 치르고, 시험 종료 후 합격 여부를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재단은 공공행사 운영 입찰에서 안전관리 역량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따라 이번 자격 취득이 기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와 구직자의 실무 역량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방문객 누구나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며, “축제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tourbiz.jbct.or.kr)에서 확인하거나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군산시 ‘국가유산 야행’ 12년 연속 선정

내년에 봄밤 밝힌다

군산시(시장 김재준)가 국가유산청 주관 ‘2027 국가유산 야행’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12년 연속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도비 3억 7,7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2016년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27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선정되면서 군산 국가유산 야행이 지역을 대표하는 야간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특히 2027년 야행은 ‘여름밤’에서 ‘봄밤’으로 변화를 꾀한다. 시는 기존 8월에 개최하던 야행을 2027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앞당겨 개최한다.

군산 개항일인 5월 1일(1899년 개항)과 연계해 도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봄철 관광객 유입과 원도심 체류시간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내년 야행은 ‘보는 국가유산’에서 ‘함께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국가유산’으로



군산시가 국가유산청 주관 ‘2027 국가유산 야행’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12년 연속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군산시>

한 단계 더 확장한다. 올해 야행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미래세대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한다. 시민이 단순한 관람객을 넘어 지역의 국가유산을 직접 해석하고 그 가치를 전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12년 연속 선정은

군산의 국가유산이 가진 가치와 그동안 축적해 온 야행 콘텐츠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내년에는 군산 개항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봄밤의 매력을 결합해 시민과 관광객이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호원대 K-POP학과, 日 현역 아이돌 ‘MMZ’ 초청 공연

호원대학교 K-POP학과가 오는 29일 교내 노천극장에서 일본 현역 아이돌 그룹 ‘MMZ’를 초청해 특별공연과 한·일 문화교류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K-POP 전공 학생들에게 해외 현역 아티스트의 무대를 직접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이해와 현장 감각을 넓혀주고자 마련됐다.

초청된 MMZ는 일본 도쿄 시부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현역 아이돌 그룹으로, 도쿄 아이돌 페스티벌(TIF) 2026 출연 등 현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호원대 K-POP학과는 MMZ의 소속사인 ONE5 inc.와 협력해 공연과 워크숍, 현장실습 등 해외 엔터테인먼트 분야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윤영삼 K-POP학과장은 “학생들이 해외 현역 아티스트와 직접 소통하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정읍 국가유산 활용 4개 사업 선정…국비 1억9000만원 확보

정읍시가 2027년 국가유산청 공모에서 3개 분야 4개 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9000만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사업은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과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함께 누림사업’ 등이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지역 국가유산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력·시설 등과 연계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함께 누림사업’은 무성서원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을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까이 접하고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의 역사와 숨결이 담긴 문화유산들이 국가유산청 공모 선정을 통해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지역 문화유산의 고유한 매력을 살린 수준 높은 문화 체험거리를 선보여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특별한 감동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팜조아, 익산 이웃 위해 든든한 먹거리 나눔

익산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시는 22일 ㈜팜조아(대표 황은경)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자사 식품인 누룽지 1만 개(2,0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누룽지는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를 통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황은경 대표는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누룽지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숙 익산시 복지정책과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팜조아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과 소중한 마음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추석 연휴 ‘한마당 큰잔치’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2026년 병오년 추석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한마당 큰잔치’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4일간 박물관과 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 등 8개 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 문화 체험은 물론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절 문화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박물관에서는 국악 풍물놀이를 비롯한 마술, 저글링 등 관람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캐리커처, 청사초롱·방패연 만들기, 가훈 써주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명절 추억을 선사한다. 특히 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즐거움을 더할 계획이다.

전시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준비된다.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술의 역사와 그 속에 담긴 군산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술이 흐르는 길’ 기획전이 진행된다. 박물관 2층 시민열린갤러리에서는 수문화 예술교육센터의 단체인 ‘제4회 작가들의 외출·전통과 현대’가 열린다. 근대미술관에서는 고승화 초대전을 통해 서양화 작품 26점을 선보이며, 장미갤러리에서는 이형한국화와 단체인 ‘존재와 사유’를 통해 한국화 작품 19점을 만날 수 있다. 박물관은 추석 연휴 기간 정상 운영하며, 추석 당일에는 무료 입장을 실시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박물관을 찾는 시민과 귀성객들이 풍성한 공연과 체험, 전시를 즐기며 가족과 함께 뜻깊고 행복한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추석 연휴 의료 공백 최소화” 2(題)

익산시, 병·의원 46개소 운영

익산시가 추석 명절 응급 환자와 시민들의 의료 편의를 위해 비상 진료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27일 까지 당직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연휴 기간 당직의료기관은 보건소를 포함해 지역 병·의원 46개소가 운영된다. 휴일지킴이 약국은 50개소가 문을 열어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최소화한다.

원광대학교병원과 익산병원은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수사량병원과 익산제일병원은 오후 10시까지 야간진료를 실시하고, 익산시보건소는 오는 24~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과 진료를 운영해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보완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은 익산시와 익산시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과 ‘응급폭박’ 앱을 이용하면 익산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을 방문한 경우에도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24시간 응급실 가동

군산시 보건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명절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이는 이번 연휴 기간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자,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든든한 진료 안전망을 구축한 것이다.

우선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은 연휴 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한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보건진료소 등 총 75개소를 지정·운영해 시민들의 진료에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중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는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 시·도 콜센터, 군산시청 및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모두가 웃음꽃을 피워야 할 명절에 몸이 아파 서러운 일이 없도록,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과 힘을 모아 든든한 진료 대책을 마련했다”며, “연휴가 시작되기 전 방문할 병원이나 약국의 운영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 대장도, 명품 관광지로 ‘탈바꿈’

관광기반시설 확충 완료 해수범람·교통난 해소

군산시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명소인 고군산군도 대장도가 고질적인 해수 범람 위험과 극심한 주말 교통난을 말끔히 해소하고 안전한 명품 관광지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군산시(시장 김제준)는 대장도 일원의 해수범람에 따른 월류 피해를 예방하고 관광객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한편,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 온 ‘대장도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장도를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섬을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군산군도의 빼어난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대장봉은 전국적인 트레

킹 명소로 떠오르며 주말마다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하지만 바다와 맞닿아 있는 지형 특성상 백중사리나 대조기 만조 시 해수가 제방을 넘어 상가와 도로로 범람하는 일이 빈번해 주민 재산 피해는 물론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협소한 진입로에 주말 방문객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병목현상이 극심했고, 소방차나 119 급구차 등 긴급 구조차량조차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군산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전 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고,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입, 2025년 5월 첫 삽을 뜬 지 1년 4개월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시는 만조 시 해수 월류를 원천 차단하는 방지 시설을 대폭 보강·신설해 상가 및 보행로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이 막힘없이 회차할 수 있는 전용 회차로 및 안전 통행로를 조성해 응급 재난 대응 체계를 완비했다. 아울러 도로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말 교통 혼잡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관광기반 시설의 확충을 넘어 오랜 기간 자연재해와 안전 취약성으로 불안해하던 섬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관광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고군산군도의 안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해 사계절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대표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의회, 추석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상인들 만나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22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충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서동시장과 중앙시장을 찾아 과일, 채소, 육류 등을 구입해 장바구니를 채웠다.

의원들은 상인들의 손을 맞잡고 물

가상승과 소비위축으로 시름이 깊어진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장을 본 후에는 중앙시장 내 청년몰을 찾아 청년몰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활성화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충영 의장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사진=익산시의회>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소나무 농가 약제 지원

한 번 주사로 4년 예방

정읍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키우는 농가에 최대 4년간 효과가 이어지는 예방나무주사 약제를 지원한다.

정읍은 전국에서도 소나무 재배농가가 많은 지역이다.

최근 재선충병 발생지역이 넓어지면서 소나무류를 외부로 옮길 수 없는 반출금지구역은 24개 동과 11개 읍·면의 75개 리에 걸쳐 총 3만3891ha에 이른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예비비 5000만 원을 들여 반출금지구역 안에 있는 소나무 재배농가 84곳, 110ha에 예방약제

를 지원했다.

2027년 지원 대상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조경용 소나무를 재배하거나 관리하면서 나무주사 방제를 희망하는 농가다.

재배 면적에 따른 신청 제한은 없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수요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지원 약제는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으로 인정한 합제나무주사액 에이트 성분을 섞어 만든다.

약제를 나무에 한 번 주입하면 예방 효과가 최대 4년 동안 이어진다.

시는 농가별 재배 면적과 나무 수를

살펴 지원량을 정할 계획이다.

시는 2027년 1월 대상 농가에 방제 명령을 내리고 나무주사 방법을 교육한 뒤 약제를 배부한다.

예방나무주사는 2월부터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나무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감염되기 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가 약제 지원과 함께 피해 지역의 나무 종류를 바꾸는 수종 전환, 감염 우려 구역의 나무를 일정 범위로 제거하는 소구역 모두메기 등 여러 방식을 함께 활용해 정읍의 소나무와 산림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국가유산 콘텐츠 경쟁력 입증

국가유산청 공모 8건 선정

익산시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2027년 국가유산 활용 공모사업’에서 8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선정 사업은 △국가유산 야행 △생국가유산 △항교·서원 활용 △세계유산 홍보지원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백제문화유산주간 대표 콘텐츠 개발·운영 △무형유산 전수관 활성화 △지역국가유산 교육활성화 등이다.

총사업비는 14억 2,574만 원으로 국비 6억 1,950만 원, 도비 2억 4,187만 원, 시비 5억 6,437만 원이 투입된다.

신규 사업 2건이 추가되면서 국가유산 활용 분야도 넓어진다. ‘백제문화유산주간 대표 콘텐츠 개발·운영’과 ‘무형유산 전수관 활성화’가 새롭게 선정됐다.

백제문화유산주간 대표 콘텐츠 개발·운영 사업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의 세계유산 등재일인 2015년 7월 8

일을 기념하는 백제문화유산주간에 맞춰 추진된다. 백제문화유산주간의 특색을 살린 야간 콘텐츠를 개발·운영해 세계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무형유산 전수관 활성화 사업은 지역 무형유산의 전승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무형유산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선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국가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익산 국가유산의 활용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박성일 익산시 문화유산과장은 “국가유산 야행의 10년 연속 선정과 생국가유산의 최우수 사업 선정 등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내년도 사업으로 이어졌다”며 “새롭게 선정된 사업까지 내실 있게 준비해 시민과 관광객이 익산의 국가유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나서

지역 상권 활력 불어넣어

정읍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시는 22일 이학수 시장과 공무원, 전통시장 상인회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샘고을시장과 연지사장, 신대인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 농산물과 차례용품, 생필품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에 동참했다. 인터넷 상품과 대형 할인점 이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장보기 행사에서 구입한 물품은 지역 사회복지시설 8곳과 형편이 어려

운 3가구에 전달됐다.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시청 각 부서와 읍면동 직원들도 부서별로 ‘추석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공직자들이 앞장서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를 넓히고 지역 상권에 힘을 보탰다.

이학수 시장은 “추석을 맞아 시민들께서도 정과 인심이 살아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며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느끼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상인들에게도 힘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도 따뜻한 정을 나누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현대차 투자 대응’ 점검 회의

군산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장 주재로 ‘현대차 투자 대응 맞춤형 기업안착 및 정주인프라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시가 투자유치 성과와 산업기반 구축, 중앙부처 예산 확보 등 굵직한 현안 위주로 대응해 왔다면, 그 성과를 실제로 이 도시에서 살아가 사람들의 삶으로 옮기는 작업, 즉 ‘정주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실무 회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날 회의에는 교통·주거·교육·의료·생활편의시설 등 정주여건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20여 개 부서가 참석했으며, 소관 분야별 현황과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고, 필요한 후속 대책을 단계로 공유했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현대차 투자로

늘어날 인구와 근로자를 염두에 두고 교통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오갔다. 김제준 시장은 “현대차 9호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려면 기업과 근로자가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준비는 새로 오는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군산에 사는 시민의 삶의 질까지 함께 높이는 방향”이라며 “부서마다 맡은 분야를 꼼꼼히 챙겨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시는 이날 논의된 부서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현황과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고, 필요한 후속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백제유산, 어린이 상상력으로 재해석

익산의 백제 문화유산을 어린이들의 시선과 상상력으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린다.

익산시 백제왕궁박물관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박물관 내 개방형 수장고 앞 복도에서 ‘제16회 어린이 문화제 그리기 대회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백제왕궁에서 펼쳐는 나의 상상 스케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5월 9일 열린 어린이 문화제 그리기 대회 입상작 38점을 선보인다. 전시 작품은 최우수상 3점, 우수상 3점, 장려상 32점으로, 유치부 12점과

초등학교 저학년부 14점, 고학년부 12점으로 구성됐다.

작품에는 백제왕궁과 미륵사지의 풍경을 비롯해 연꽃무늬 수막새와 사리장엄구 등 익산의 다양한 백제 문화유산이 담겼다. 어린이들은 문화유산을 직접 관찰하고 느낀 점을 저마다의 색감과 상상력으로 표현해 친근하고 색다른 모습으로 풀어냈다.

백제왕궁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익산 백제 문화유산의 다양한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군, 국비 확보 선제 대응

2028~29년 국가예산 총사업비 8,356억 규모 신규사업 39건 발굴

부안군은 지난 21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방상윤 부군수 주재로 ‘2028~29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부안의 성장·발전을 견인할 신규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39건, 총사업비 8,356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이 가운데

국비는 5,595억원이며, 2028년도 국비 요구액은 852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립 새만금말박물관 건립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 및 자율주행 풀버스 실증 △새만금 RE100 연계 해수냉각 AI 데이터센터 및 웰니스 북향센터 조성 △부안 낙시북향타운 조성 △갯벌 공공자원화사업 △탄소중립 체험관 건립 △새만금형 부유식 건축물 국가 테스트베드 조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군은 단순한 신규사업 발굴에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 및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국가 지원 필요성, 사업 규모와 재원구조, 사전 행정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

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방상윤 부군수는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국비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국가 지원 당위성을 충분히 보완해 중앙부처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군은 앞으로 발굴사업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2028~29년 국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새만금신항, 왜 군산인가?”

대법원에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취소소송 제기

김제시는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의 새만금신항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관할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일 새만금신항 매립지와 신항만 방파제 등 공유수면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가 7일 이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013년과 2021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성된 이른바 A·B·C(별첨 : 새만금 방조제 관련 대법원 판결문 별지 도면(대법원 2010주73, 2015주566)사진참고) 전체 관할구도, 즉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새만금 전체의 기본 관할구도가 이번 신항 결정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달라졌는지를 대법원에서 따질 계획이다.

새만금신항은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고 동서도로를 통해 김제 내륙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육상에서 신항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김제시 관할구역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의결문에 명시돼 있다. 시는 실제 사람과 차량, 물류가 오가는 현실적인 육상 접근체계와 스마트 수변도시·내부개발지역 등 배후지역과의 연계성이 관할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비교·형량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새롭게 구성된 제9기 중분위가 과연 이 중대한 사건을 얼마나 충분히 들여다보고 심의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5일 신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제9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날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현장방문과 지방자치단체의

견청취 등을 거쳤지만, 9월 4일 최종 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불과 6개월여에 불과하다. 반면 새만금신항으로 향하는 핵심 육상 연결축인 동서도로는 2022년 12월 중분위에 상정된 뒤 2025년 2월 결정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차례의 심의를 거쳤다. 시는 신항이 동서도로보다 훨씬 복잡한 법률·행정·항만·공간계획 쟁점을 안고 있는데도 새 위원 체제에서 단기간에 결론이 내려진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네 차례의 집회와 삭발까지 하며 요구했던 것은 결론을 미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만큼 충분히 살펴보고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이어 ‘이제는 감정적인 공방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법과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속도’

자체사업 준비·정부 공모 대응 총력

고창군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이 직면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자체사업 추진 가능성도 열어두고 제도적 기반 마련과 재원 확보, 주민 공감대 형성 등을 병행 추진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9월에는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과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인구·산업·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재정 사업방식 등을 검토해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추진모델과 단계별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필

요성과 지역 여건을 적극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정부 추가 공모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원, 주민 공감대 등 필요한 기반을 꼼꼼히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AI 농업로봇 실증 거점’ 본격화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김제시가 대한민국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첨단 AI 농업로봇 실증 거점 조성을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22일 2층 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주관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참여기관 및 대학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농업 AI 로봇 사업단 발대식 및 지자체·참여기관 공동 업무협약(MOU)’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산업통상부 공모에 최종 선정된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기반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알리고, 성공적인 인프라 구축과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김제시 실증부지 내 ‘시설농업 AI로봇 실증센터’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 협력 △시설농업 로봇 실증·검증·성능평가 시 실증센터 인프라 우선 활용 △시설농업·농기계·로봇 관련 기업의 R&D 및 기술 사업화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약 297억원(국비 138.4억, 지방비 등)을 투입해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첨단 시설농업 로봇의 핵심기술(환경인지, 자율작업, 과채류 수확 등) 개발 실증 인프라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덕면(구 김제공화 부지 일원) 11.076㎡ 부지에 총 77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의 실증센터 본동(연면적

1,584㎡)과 첨단 유리온실(495㎡)로 구성된 ‘시설농업 AI로봇 실증센터’가 들어선다. 실증센터에는 운송도 및 강우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대형 환경모사 챔버, AI 로봇 구동·주행 평가 시스템, 디지털 트윈 연계 테스트베드, 기업 입주 공간 등이 갖춰지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AI와 첨단 로봇 기술의 융합”이라며,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김제시가 대한민국 시설농업 로봇의 표준을 세우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농생명 첨단 모빌리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

분야별 비상근무체계

김제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8개반, 9개부서 68명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각종 사건·사고와 시민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물가안정 △교통안전 대책 △도로관리 △재난·안전 관리 △생활환경 관리 △상수도 안정 공급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명절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는 한편,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 처리와 상수도 비상급수, 도로 불편사

항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가동해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귀성객 증가에 대비해 원활한 교통 소통과 도로 안전관리에 힘쓰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특히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진료상황실과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병·의원, 약국 등을 운영해 시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추석 연휴 동안 시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휴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확산’

장보기 행사 추진

고창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22일 고창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을 위한 ‘추석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 고창신협, 고창새마을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과 고창군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어성소비자연합회 고창지부 등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해 전통시장 곳곳을 돌며 명절 성수품과 지역 농·축·수산물 등을 구매했다.

특히 이번 장보기 행사는 민선9기 공약 1호로 추진 중인 ‘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 지급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부안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부안군은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11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올겨울 독감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내달 6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 예방접종 무료 대상은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관내 위탁의료기관 23개소 및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 지정은 지난 21일에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75세 이상 어르신은 내달 6일부터, 70세~74세는 내달 12일부터, 65세~69세는 내달 15일

부터 지정된 23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안군보건소는 내달 2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본인, 다문화 가정 대상으로 무료 접종, 15세~64세 부안군민은 9,000원의 유료접종을 시행한다.

부안군보건소는 대상자별 접종 일정에 맞추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지원”

고창군이 추석 연휴를 맞아 군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4일간 ‘2026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하루 9개 반 16명 규모의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사건·사고와 생활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읍·면에서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5개 점점반을 통해 19개 주요 성수품의 가격 동향과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군민활력지원금 30만원 지급과 함께 9월 한 달간 고창사랑상품권

할인 혜택을 최대 20%까지 확대하고, 6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장보기 행사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

귀성객 증가에 대비해 특별교통상황실을 운영하고, 공영주차장 30개소 1,718면을 무료 개방한다. 선운산IC 등 주요 구간의 교통 혼잡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추석 연휴 동안 민생경제와 안전, 의료 분야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군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문해교육, 전북 무대서 빛났다… 학습자 5명 수상

부안군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한마당’에 관내 문해교육 학습자와 관계자 90여명이 참여해 사회전 시상과 학예발표, 축하공연 등을 통해 배움의 성과를 선보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부안군 문해학습자 5명이 전국 및 전북 사회전에서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전국 사회전 글아름상은 정금숙(70) 학습자가 수상했으며, 전북 사회전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김정숙(79),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이문자(84),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상 이윤자(72)·박영자(84) 학습자가 각각 선정됐다.

이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글로 풀어낸 배움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꾸준히 도전해 온 학습자분들이 전국과 전북 무대에서 값진 결실을 맺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문해학습자들이 배움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 일석이조 페스타’…

일자리와 문화가 한자리에

김제시는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김제실내체육관 일원에서 ‘2026 김제 일(Work)석이조(Joy) 페스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며,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 등이 함께 어울리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일자리 박람회’에는 관내 우수기업 35개사가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 채용면접을 진행한다. 김제실내체육관 야외행사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와 가족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행사 참여 외국인에게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시간 인정 혜택이 주어지며, 만족도 조사 참여자에게는 기념품과 K-FOOD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기업의 구인난과 구직자의 취업난을 동시에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 산업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곰소젓갈&왕새우 축제

준비 최선… 내달 2일 개막

부안군이 곰소젓갈과 제철 왕새우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제18회 부안 곰소젓갈&왕새우축제’를 앞두고 관광객 맞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곰소 다용도부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부안 곰소젓갈과 왕새우가 함께 FOOD FESTA’를 주제로 제18회 부안 곰소젓갈축제와 제4회 곰소만 왕새우축제를 통합·공동 개최해 곰소젓갈과 왕새우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특산품의 소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축제는 곰소젓갈의 전통적 가치와 K-소스 트렌드를 접목하고 제철 곰소만 왕새우를 함께 선보이는 융복합 미식 축제로 마련해, 곰소의 맛과 매력을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야간행사로는 전국 캠핑 마니아들이 매년 방문하는 ‘곰소 노을빛 카라반 캠핑여행’을 통해 곰소 앞바다의 신선함과 청아한 밤하늘의 별빛을 감상하며 함께하는 가족, 연인들에게 곰소의 아름다움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진성 축제추진위원장은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곰소를 찾아 제철 왕새우와 곰소젓갈의 맛을 즐기고 아름다운 가을의 추억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전국 방문객이 곰소로, 곰소로, 발걸음 돌려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군 ‘노후 거점 산단’ 후보지 선정

전국서 3곳 선정·2741억 투입 AI 기반 제조혁신·에너지 자립 5개산단 연계 미래차 생태계 구축

완주일반산업단지가 전국에서 단 세 곳만 이름을 올린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지구’ 후보지로 선정되며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과 첨단 제조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22일 완주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에서 전국 세 곳의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뽑혔다. 이에 완주군은 완주일반산단을 거점으로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완주테크노밸리 제1·제2일반산단, 완주농공단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산업 혁신 정사진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완주 지역 5개 산업단지에는 486개 기업이 동지를 틀고 1만 9,716명을 고용하고 있다. 완성차 생산부터 부품 제조, 연구개발까지 연결되는 산업 기반

을 갖춰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이끄는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완주일반산단은 착공 뒤 37년, 전주과학산단은 29년이 흘러 기반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노후 공간을 개편하고 입주기업의 전환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로 꾸준히 나왔다.

군이 마련한 계획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2,741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미래모빌리티·로봇부품 산업전환 △인공지능 기반 제조혁신 △에너지 자립·탄소중립 △정년친화형 근로·정주환경 조성 등 4대 전략,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은 지역특성과 제조기반 구축, 로봇 핵심기술 공동 연구개발, 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스마트 물류·에너지 플랫폼 조성 등이다. 특히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충하고 입주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각 산단의 강점을 연결해 연구개발부터 완성차 제조까지 지역 안에서 이어지는 미래 이동수단 산업 생태계를 다질 구상이다. 거점인 완주일반산단은 완성차 생산과 제조 혁신을 맡고, 전주과학산단은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 테크노밸리 산단은 첨단·로봇 부품 개발, 완주농공단지는 공업망과 생산 지원을 담당하며 상생 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에 현대자동차가 차세대 친환경 경 소형 상용차(프로젝트명 L1T2) 양산을 위해 1조 원을 투자하고, 30여 개 협력사도 6,125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어서 미래차 전환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군은 전문가 컨설팅으로 세부 계획을 보완하고 관계기관과 사업별 실행방안을 협의한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는 2027년 1분기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옛 경로당 어르신 일터·자원순환 잇다

순창 다화용기세척장 개소 행사·장례식장 다화용기 공급

순창군이 22일 순창다화용기세척장 개소식을 열고, 어르신들의 새로운 사회참여와 친환경 자원순환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군은 총사업비 3억 8천만원을 투입해 시설을 조성했으며, 관내 행사와 공공장례식장 등에 다화용기를 공급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실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던 옛 할머니경로당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한때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그곳을 이용하셨던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를 통해 다시 찾아와



<사진=순창군>

일하고, 새로운 사회참여를 이어가는 일터로 다시 태어났다.

순창시니어클럽 ‘청춘드림워킹’ 공동체사업단이 세척장 운영을 맡아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세척장에 맡겨지는 다화용기

는 애벌 세척, 불림, 자동 세척, 살균 소독, 건조, 검사 등 6단계의 위생적인 공정을 거쳐 관리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다화용기 공급을 통해 환경오염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제34회 흥부제 내달 9일 개막

흥부전 이야기 따라 5개 테마존 광한루 국보 승격 기념식 연계

남원시는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광한루원과 요천둔치 일원에서 ‘제34회 흥부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흥부제는 ‘홍금성공’을 주제로 흥부의 선행과 나눔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마련된다.

올해 흥부제는 축제장을 흥부체험존, 제비상생존, 황금대박존, 놀부작막존, 광한루원존 등 5개 테마 공간으로 구성된 흥부전의 이야기를 축제장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축제의 상징 공간인 황금대박존에는 흥부의 박을 모티브로 한 황금대박정원과 소원박길을 조성한다. 제비상생존에서는 지역 농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 흥부장터가 운영된다. 흥부 품팔이단과 선행인증 이벤트 등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과 지역 생산자와 소상공인이 관광객과 만나는 상생의 장도 마련한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흥부체험존에서는 흥부놀부 그림그리기, 어린이 직업체험, 전통과학축전, 수학체험교실, 짚풀공예, 만인무과별시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경의상이 일원에 마련되는 놀부주

막존에서는 먹거리와 함께 축제의 여유를 즐길 수 있으며, 광한루원존에서는 시민의와 및 흥부가족상 수어식과 전통혼례체험 등 지역의 전통문화를 만날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전통농악 공연과 경연, 단막창극 ‘흥부·놀부’ 등 흥부제의 정체성을 담은 행사도 이어진다. 특히 개막일인 10월 9일 밤에는 요천둔치 일원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져 가을밤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10일에는 광한루 국보 승격 기념식이 개최되는 등 광한루원 일원에서 다양한 연계행사가 펼쳐진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호남권 최초 ‘수소 모빌리티 검사센터’ 구축

81억 투입 연간 5,300대 검사 역량 생산부터 검사까지 원스톱 체계

완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호남권 최초로 ‘수소 모빌리티(이동수단) 검사센터’ 구축에 나선다.

세 기관은 지난 21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수소 상용차 생산 거점인 완주군에 전문 안전검사 기반 시설을 다지고, 수소 버스와 트럭 보급 확대에 따른 검사 수요에 선제 대응하

고자 마련했다.

검사센터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총사업비 81억 3천만 원을 들여 조성한다. 이곳에는 수소차 안전검사 시설을 비롯해 전시실, 회의실, 교육장 등 검사와 교육, 지원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 시설이 들어선다.

검사 시설은 수소 버스·트럭의 내압 용기와 연료 장치를 검사하는 2개 진로, 수소 승용차 검사 1개 진로, 일반 자동차 안전 검사 1개 진로 등 총 4개 진로로 꾸려 연간 약 5,300대의 차량을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내압 용기와 밸브 손상, 연료 장치 이상, 수소 체계(시스템) 장착 상태,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전

자제어장치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수소전기차의 운행 안전성을 빈틈없이 관리한다.

센터에서는 내압 용기와 용기 밸브 손상 여부, 연료 장치 손상, 수소시스템 장착 상태, 가스 누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전자제어장치 등 전문 검사장비를 활용해 수소전기차의 운행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센터가 구축되면 수소상용차 이용자는 지역 내에서 내압용기·연료장치 검사와 자동차 안전도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수소차 운행 안전성과 이용자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 노인일자리 ‘최우수’…시니어클럽도 ‘A’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올해 3,380개 일자리 제공

순창군이 지난 21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주간 기념식’에서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에서도 순창시니어클럽이 A등급을 받으며, 지자체와 수행기관이 함께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2025년 추진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사업 운영 전반을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와 수행기관 등을 선정한 것

/순창=박지현 기자

로,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통해 현장 관계자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창군은 수행기관인 순창시니어클럽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자의 안전관리와 사업 내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순창군은 우수 지자체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순창시니어클럽 역시 우수 수행기관 분야에서 A등급을 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한편, 순창군은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3,38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완주군>

완주군 “대한민국 피지컬 AI 혁신” 비전 선포

산·학·연·관 산업생태계 구축

완주군이 22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완주군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을 갖고 대한민국 실물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완주군의회 의장, 국회의원, 전북대학교, 캠퍼스종합기술원, 현대자동차 등 산·학·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비전 선포식에서는 ‘대한민국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혁신의 시작 완주’,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가 여는 미래 더 그레이트 완주(The Great Wanju)’를 미래 비전으로 공식 선포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실물 인공지능은 인공지능과 로봇, 제조업의 경계를 넘어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선포식이 완주가 대한민국 실물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고 산·학·연·관의 역량을 모아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생태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앞으로 실물 인공지능 연구개발(R&D)과 실증 기반시설 구축, 기업 유치와 육성, 전문 인재 양성, 산업 간 연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인공지능(AI)과 제조 혁신이 만나는 미래 산업 거점 완주’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장류축제 막바지 점검…안전관리 총력

군수 주재 최종점검 보고회

순창군은 지난 21일 오후 3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최영일 군수 주재로 ‘제21회 순창장류축제 준비상황 최종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군수와 부서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총괄 준비상황을 비롯해 부서별 담당 업무 추진상황과 남은 기간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행사장 기반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준비를 비롯해 안전관리, 교통·주차 대책, 셔틀버스 운행, 먹거리버스 위생관리, 환경정비, 의료지원, 외국인 관광객 안내 및 통역체계 등 관광객 편의와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순창=박지현 기자

또한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조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행사 전 현장점검과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다음 달 2일 덕수궁과 광화문 일원에서 열리는 임금님 진상행렬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행사 당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축제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각 부서가 담당업무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순창군 성인문해 학습자 4명

문해교육 한마당 시화전 수상

순창군 성인문해 학습자들이 배움의 결실을 시화에 담아 전국 및 전북자치도 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지난 21일 전국 문해교육 시화전과 전북특별자치도 시화전에서 학습자 4명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시화전은 지난 6월 8일부터 19일까지 공모가 진행됐으며, 염서 부문 1명과 시화 부문 3명 등 총 4명의 학습자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염서 부문에서는 풍산울랄라문해교실 이춘임(83세) 학습자가 ‘육남매를 위한 기도’로 전국부문 글쫄상을 수상했다. 이춘임 학습자는 문해교육에 참여한 지 6개월 만에 가족을 향한 마음을 글로 표현하며, 배움을 통한 삶과 마음을 풀어냈다.

시화 부문에서는 인계청춘학교 안귀임(71세) 학습자가 ‘귀임아 고맙다’로 전북도 교육감상을, 풍산울랄라문해교실 조말순(84세) 학습자가 ‘나의 공부’로 전북진흥원 장상을 수상했다. 또 인계청춘학교 김광희(81세) 학습자는 ‘못 잊을 어린시절’로 전북평생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군 관계자는 “학습자들이 한 글자씩 배워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완성하고, 그 노력을 인정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시설관리공단, 성묘객에 국산 생화 200다발 무료 배부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완주군공설장사시설을 찾는 성묘객에게 국산 생화 200다발을 선착순으로 무료 배부한다.

이번 행사는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줄이고 생화 현화를 장려해 자연친화적인 추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한국화훼차조금협의회에서 지원받은 국산 생화 200다발을 공설공원묘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준비된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배부한다. 현장에서는 플라스틱 조화 사용 줄이기에 대한 성묘객의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공단은 지난 2월 완주군, (사)한국화훼차조금협의회와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 및 생화 현화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설 명절 생화 현화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설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희수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이 고인을 기리는 마음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추모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설장사시설을 찾는 성묘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주생면 도산교 4억 투입 내진보강·보수공사

남원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지진 발생 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생면 도산교 보수 및 내진보강공사’를 본격 시행한다.

도산교는 남원시 주생면 도산리에 위치한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시설물 교량이다. 내진능평가 결과 지진 안전성에 부족함이 지적됨에 따라, 지진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교량 붕괴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교량받침 24개소를 교체하고 교량 전체 보수 작업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노후된 접속부를 아스콘으로 재포장하고 교량 난간을 전면 교체하는 등, 주생면 일대 주민들의 통행 안전과 주행 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연차별 내진보강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관내 교량 안전관리를 차질 없이 구축하여 재난 예방 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주요 도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선제적인 재난 예방을 통해 재해에 강한 안전도시 남원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추석 한입' 바람떡 만들기 체험

완주군청소년수련관이 최근 관내 초등학교 10명을 대상으로 '추석 한입, 전통 한입 바람떡 만들기' 체험을 열고 전통 식문화의 가치를 알렸다.

이번 프로그램은 추석을 맞아 청소년들이 전통음식인 떡에 담긴 문화와 뜻을 배우고, 직접 떡을 빚어보며 우리 식문화에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마련했다.

참여한 어린이들은 바람떡의 유래와 특징을 배운 뒤 알록달록한 천연 반죽과 소를 활용해 정성껏 떡을 빚었다. 특히 좋아하는 캐릭터 모양으로 떡을 빚고 꾸미며 창의력과 표현력을 마음껏 뽐냈다.

단순한 요리 실습을 넘어 손동작을 활용해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개성 있는 작품을 완성하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활동을 마친 뒤에는 직접 빚은 바람떡을 서로 나누어 보며 소감을 이야기하고, 정성스레 만든 떡을 맛보는 뜻깊은 시간도 보냈다.

/완주=김명곤 기자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찾아가는 미용실 프로젝트 추진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9월부터 11월까지 센터에 등록된 노인 유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용실 해피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해 전문 이·미용 자원봉사자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커트, 염색 등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상에 작은 활력과 행복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 유관시설 및 복지관의 신청을 받아 총 5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기관별 2회씩 총 10회에 걸쳐 이·미용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회차별 4~5명의 전문 이·미용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평소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센터 등록 노인 유관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기관과 자원봉사자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재능 나눔을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확산할 계획이다.

/군산=지승길 기자

한국해상풍력, 부안군에 추석 명절 백미 기탁

2,000만원 상당 백미 전달

한국해상풍력(주)이 22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관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백미(10kg) 609포(2,000만원 상당)를 부안군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한국해상풍력(주) 위진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의 뜻을 함께 했으며 기탁된 백미는 관내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인 경로당 482개소에 각 1포씩 전달되며, 해상풍력 사업 대상

지 인근이자 도서 지역인 위도면의 취약계층 127가구에 신속하게 전해질 예정이다.

위진 한국해상풍력(주) 대표는 "이번에 준비한 작은 정성이 명절을 보내는 지역 어르신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해상풍력 사업 추진과 함께 부안군과의 상생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지평선라이온스클럽, 추석맞이 기부행사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에 후원물품 전달

김제시는 22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김제지평선라이온스클럽(회장 이정환)이 성암노인복지센터에서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맞이 사랑의 기부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특히 김제지평선라이온스클럽은 평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의료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패션 소품물 '난닝구닷컴'의 협조를 받아 후원 의류를 마련했으며,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뜻을 모아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후원물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김제노인복지센터,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성암노인복지센터에 전달됐으며, 돌봄이 필요한 지역 어르신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제지평선라이온스클럽은 평소



에도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후원물품 전달 등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정읍 푸른솔 불우이웃회, 아동 위생환경 개선

아동가정에 개수대 교체

정읍 푸른솔 불우이웃회(회장 김형철)가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200만원 상당의 개수대(싱크대) 교체를 지원했다.

푸른솔 불우이웃회는 22일 정읍면에 거주하는 드림스타트 등록 아동 가정을 찾아 새 개수대를 설치하고 기탁식을 열었다.

해당 가정은 위생적인 주거 환

경 조성이 시급했던 곳이다. 이번 개수대 교체로 아동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김형철 회장은 "아이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취약계층에 추석 음식 꾸러미 지원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활용

익산시가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의 명절 밥상을 챙기고 안부까지 살피는 따뜻한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명절 음식 꾸러미 200개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꾸러미는 전과 유과, 송편 등으로 구성됐으며,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명절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먹거리 지원과 함께 대상 가구의 생활 여건도 살핀다.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꾸러미 전달과 함께 안부와 생활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 필요한 복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무주읍발전협의회 축제 수익금으로 장학금 기탁

무주군 무주읍발전협의회 회원들이 22일 제)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원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제30회 무주반딧불 축제 기간에 운영했던 '천원 국수' 부스 수익금 중 일부로 알려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성용 무주읍발전협의회회장은 "회원들이 축제 현장에서 국수를 삶으며 땀 흘려 무주 대표 축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익금은 우리 지역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데 쓰게 돼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무주읍, 나아가 무주군 발전을 위해 활동하며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읍발전협의회는 18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정월대보름 행사를 비롯해 읍민의 날 행사 주관 및 반딧불축제 지원 등 주민 화합과 무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추석 명절 제수용품 지원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는 추석 명절을 맞아 22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64가구에 명절 제수용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각 읍·면 이장과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가구로,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제수용품은 돼지갈비, 송편, 참기름, 기름, 계란, 김, 식용유, 부침가루, 찹쌀 등 차례상에 필요한 9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는 정성껏 마련한 제수용품을 대상 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나눔에는 한오백년추여탕 진안점도 추여탕을 후원하며 뜻을 함께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안전한 명절위한 전기안전 수칙 5가지



하나의 멀티탭에
다수의 전기 제품을
연결 하지 않기



잔시간 집을 비울때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 코드뽑기



전기제품 사용 전
전선에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 하기



전열기구 사용중
주변에 가연성 물질
가까이 두지 않기



전기화재 발생 시
가장먼저 전기차단기를
내려 전원차단



김제시, 귀성객 맞이 대대적 환경정비 나서

“사계절 내내 깨끗하게, 귀성객 맞이는 정성스레”

추석맞이 도심 청소·국가유산 야행·지평선 축제 대비 환경정비 주력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지평선 축제를 즐기려는 방문객들로 김제 도심은 반가운 설렘으로 물든다.

김제시는 고향과 축제 현장을 찾는 이들에게 쾌적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선사하고자 지난 18일 도심 전역에서 대대적인 추석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손을 잡고 모은 정성 어린 손길이 정겨운 고향 풍경을 한층 환하게 가꾸어 가고 있다.

이 같은 차별화된 청정 행정의 바탕에는 그간 축적해 온 대외적 성과와 노하우가 자리하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새단장’ 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일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검증된 환경정비 역량을 이미 입증한 바 있다.

〈편집자주〉

1분기 민·관 협력 환경정비 기틀 마련, 설맞이 정비부터 ‘김제 꽃빛드리 축제’ 성공 지원

시의 이번 가을철 대대적인 환경정비는 작년 ‘대한민국 새단장’ 우수기관 선정으로 입증된 민·관 협력 저력을 바탕으로, 연초부터 꾸준히 축적해 온 현장 중심 환경관리 체계의 연속선상에 있다.

시는 지난 2월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을 시작으로 연중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튼튼한 기틀을 다지며 매일 공무원과 관내 사회·주민단체 5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과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며 시민 주도형 환경정화 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설 명절에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

사와 병행해 ‘내집·내앞·내가게 청소하기(내내내) 캠페인’을 실시하며 불법투기 쓰레기를 일제 정비하고, 상습 민원 구역인 공덕면 공덕리, 배구면 학동교차로 농공단지, 백산면 하정리 일원에서는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대 등 지역 사회단체가 대거 합심해 방치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등 민·관 협력의 기틀을 만들어냈다.

또한, 새만금 2호 방조제 바람쉼터 일대의 방치 쓰레기를 수거하는 ‘새만금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해 청정 새만금의 가치를 지켜냈다.

4월 초 개최된 ‘김제 꽃빛드리 축제’ 당시에는 16개 부서와 민간단체가 ‘1팀-1구역’ 매칭 정비를 펼쳤을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등 116명이 축제 기간 및 종료 직후 현장에 전격 투입되어 완벽한 사후관리를 선보였다.

2분기 민·관 협력 결실, 시민이 직접 만든 ‘우리동네 새단장’ 성과
2분기에도 시의 환경 정화 열기는 식지 않았다.

평소 쓰레기 무단투기와 적지않은 민원이 끊이지 않던 요촌동 일대와 황산면 용마리 일원에서 각각 톤백 5~6개 분량 및 1톤 이상의 대량 방치 쓰레기를 집중 수거해 주민들의 체감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또한 금구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버려진 폐농약병 1톤 이상을 수거해 자원 재활용과 농촌 환경보호를 동시에 이끌었고, 진봉면 새만금 바람길, 백구소공원, 백산면 매산나들목 등 주요 길목 역시 사회단체와의 촘촘한 협력을 통해 쾌적한 가로관리를 이뤄냈다.

특히 2분기에 집중된 읍·면·동민의 날 행사, 광활 햇감자 축제, 진봉 새만금 보리밭 축제, 2026 모악산 뮤직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지역 축제 현장에서도 ‘축제 전 사전 정비 - 축제 후 신속 사후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행사장 내 일회용품 줄이기 및 다화용기 지원 연계 정책을 병행해 ‘쓰레기 없는 친환경 축제’의 기틀을 다졌다.

9월 추석맞이 대청소 및 ‘2026 김제 국가유산 야행’ 맞춤형 정비

시는 이러한 1·2분기의 유기적인 민관 협력 성과를 이어받아, 지난 18일 ‘우리



동네 새단장 캠페인’과 연계한 추석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격 실시했다. 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주요 도로변은 물론 하천변과 상습투기 구역을 정밀 정비했다. 가로수 길목과 배수구에 쌓인 부산물을 선제 정비하여 도시 미관 개선과 배수 안전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김제 관아와 향교 일원에서 열리는 ‘2026년 김제 국가유산 야행’의 원활한 행사를 위해 향교 삼거리 인근부터 행사장 내부, 외곽까지 축제장 안팎을 아우르는 대대적인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하며 현장 맞춤형 환경정비에 집중했다.

행사 기간 동안은 관광객 밀집 지역에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쓰레기통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휴일 전담 근무조를 운영한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행사장 내 다화용기 지원 사업을 연계하

고, 축제 이후에는 인근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10월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까지

쉽 없이 이어지는 청정 비전
가을철 청정 도심 관리는 추석과 야행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로 이어진다.

‘K-농경문화, 지평선에서 빛나다’를 슬로건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지평선축제 기간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상반기 축제 사후관리 노하우를 발휘하여 지평선축제 기간에도 전담 환경정비 인력을 배치하고, 주요 진입로와 관광지 일대의 방치 쓰레기를 철저히 수거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도심 환경관리로 ‘연계

나 찾고 싶은 김제’ 완성

시는 대대적인 정화 활동과 함께 도심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상습 무단투기 구역에 이동식·고정식 CCTV 감시망을 보강하고, 전담 단속반을 연중 상시 가동하는 한편, 불법투기 적발 시 엄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추석에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김제의 모습을 선물하기 위해 솔선수범해 주신 시민과 사회단체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이어 국가유산 야행, 김제지평선축제에 이르기까지 김제를 찾는 모든 분이 따뜻한 정과 쾌적한 추억을 안고 가실 수 있도록 소홀함 없이 청정 도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